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속 ‘마당’의 딜레마와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박성은*

차례

1. 들어가며 - 주목받지 못한 ‘분단작가’ 박완서
2. 분단의 증언
3. ‘마당’의 딜레마
4.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5. 나가며 - ‘탈빨갱이 담론’의 사회적 담론화 가능성

〈국문초록〉

박완서는 전쟁과 분단을 시대를 통과하는 시점마다 증언을 남겨온 작가다. 자전적 경험은 물론 당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가진 공동의 기억도 함께 증언했다. 이것은 발터 벤야민이 말한 역사수집 기술자의 기록방식에 해당한다. 박완서는 ‘역사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분단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분단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박완서가 분단을 사유하는 방식이고 파편화되어 기억되지 않을 것들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자전적 소설의 출간 이후 분단문제에 대한 작품활동이 뜸했던 작가는 2009년 유작에 가까운 『빨갱이 바이러스』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수복지구 양양의 역사와 원주민의 삶을 통해 분단의 구조를 파헤치고 분단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체험세대가 실패한 분단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박사수료.

문제를 후속세대에게 상속하며 분단체제의 의무를 유산으로 남겼다.

박완서는 이 소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대립점인 ‘빨갱이 담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것은 ‘빨갱이 담론’을 전복시키기 위한 ‘탈빨갱이 담론’이 사회적 담론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일상의 담론 옆에 빨갱이 담론을 놓고, 거리낌없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극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빨갱이, 탈빨갱이, 빨갱이 바이러스, 분단체제, 분단의 해체

1. 들어가며 - 주목받지 못한 ‘분단작가’ 박완서

박완서 문학의 영역을 표상하는 단어로 ‘전쟁’, ‘여성’, ‘산업화’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작가의 말년 작품을 중심으로 ‘노년’ 또한 작가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 작가의 생애사와 ‘지금 여기’의 현재성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작품에 투영된 결과였다. 그런데 ‘전쟁’을 다룬 작품 『나무』으로 등단해서 1970-80년대 전쟁의 경험을 소설화했고, 전후 일그러진 일상을 작품화했던 박완서는 정작 분단문학에 대한 논의가 왕성했던 1980-90년대에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거나,¹⁾ 거론되더라도 ‘산업화’와 비판적 ‘모성’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다.²⁾ 이와 관련하여 권명이는 박완서의 소설 문법이 “근대의 소설 규약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

1) 분단문학의 대표적인 평론가 임현영은 반성해야 할 대중문학의 작품 목록의 일부에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 『휘청거리는 오후』, 『목마른 계절』을 거론하고 있다. 『목마른 계절』은 『나무』의 시간적 배경 이전 전반기 1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다루고 있다. 표면적으로 진이의 사랑이 서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 『그 많은 상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대중연애소설로 보기 어렵다. 임현영, 『우리시대의 소설 읽기』, 도서출판 글, 1992, 318-328쪽.

2) 유임하, 『기억의 심연』, 이회문화사, 2002, 209-213쪽.

기” 때문에 1970-80년대 사회담론과 문학담론에서 다뤄지기 어려웠다고 평했다.³⁾

따라서 박완서는 1970-80년대 분단문제를 다룬 작가의 범주에는 들지 못했다.⁴⁾ 박완서의 문학이 “분단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단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 문학작품이어야 한다”⁵⁾는 분단문학의 문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분단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투철한 민족적 입장’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은 분단의 원인을 외세개입과 국가권력 추구집단의 대립, 이념대립에 있다는 관점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투철한 민족적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분단으로 국가체제가 달라진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만 확보하고 있다면 분단 극복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분단문학에 포함되기 위한 이 필수적인 요건들이 박완서 문학에는 없다. 작가는 ‘역사와 민족’을 위한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역사의 주체에서 비켜선 사람들의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을 서사화하였기 때문

3) 권명아,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 시대의 미래』, 박완서 외,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206쪽. 1970-80년대의 문학담론과 사회담론의 경향과 박완서 비평의 문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논의는 조혜정, 이선미의 논문을 참조할 것.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박완서論』, 권영민 외, 삼인행, 1991, 127-178쪽;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4)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박완서는 등단 후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출판을 계기로 2000년대 이후에 와서야 전쟁의 기억을 다룬 작가로 재평가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도 박완서가 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소설을 다수 발표했음에도 1970-80년대 분단문학의 논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고에서 분단문학의 범주에 박완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1970-80년대에 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5)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문학비평』, 김승환·신승범 엮음, 청하, 1987, 21쪽.

6) 임현영은 이 외에도 친일청산, 독재반대도 ‘올바른 분단문학’이 되는 구성요건으로 제시했고, 분단문학은 분단극복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였다.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221-223쪽.

이다.⁷⁾ 그 서사에는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폭력이 망령처럼 찾아와 현실의 일상을 전복해도 그에 맞서지 못하고 ‘고통을 견디는’, 이름도 없는 ‘나의 고백이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박완서의 문학은 발터 벤야민이 추구했던 역사의 서술방식과 만난다. ‘사건들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역사에서 상실하지 않는’ 연대기 기술자의 서술방식이다.⁸⁾ 역사가가 승리자에게만 감정이입을 하여 기술한 역사는 스쳐 지나가는 진정한 상을 붙잡지 못한다.⁹⁾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분리되고 사라진다. 이 과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대기 기술자가 수집한 파편들이다. 박완서 문학은 연대기 기술자와 같이 전쟁이라는 역사를 살아내고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일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서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 문학은 분단문학이 기록하지 못한 ‘전쟁과 분단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이 된다.

박완서는 1970년대부터 2009년 발표된 『빨갱이 바이러스』까지 분단문제를 놓지 않고 서사화했다. 『빨갱이 바이러스』는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와 함께 작가가 평생 화두로 삼았던 전쟁과 분단, 그리고 살아낸 삶의 서사가 집약된 유작이라 할 수 있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는 박완서의 생애와 맞물려있는 아픈 죽음들에 대한 회상으로 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자전적 소설이었다. 그에 반해 『빨갱이 바이러스』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사회적 담론으로도 거론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하는 질문같은 유작이다. 자신이 살았던 곳, 잘 아는 이야기를 즐겨 썼던 작가가 이 소설에서는 낯선 ‘수복지구 양양’의 이야

7) 정호웅은 분단문학의 관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이 전쟁의 원인과 전개양상, 분단 상황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험의 직접성에 기대어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못해 전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박완서論』, 권영민 외, 삼인행, 1991, 85-98쪽.

8)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332쪽.

9) 발터 벤야민, 앞의 책, 335쪽.

기를 풀어냈다. 분단의 상처로 치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수많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다.

박완서는 생의 마지막에 이 소설을 통해 분단을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했다. 작가는 1970-80년대 소설에서 분단폭력에 휘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목도하는 것으로 끝맺음했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정권의 절정에서 어떤 극복의 방법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저항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 『빨갱이 바이러스』에서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포착되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두 개의 국가를 경험한 수복지구는 전후 체제경쟁의 시험장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언제든지 '적'의 위치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우월하게 작용하여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수복지구 주민은 역사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북의 '인민'이었다는 것도 철저히 잊혀지기를 바랐다.¹¹⁾ 박완서는 이 '망각의 땅', 수복지구를 서사화하여 또다시 '기억과 망각'의 담론으로 분단의 과거와 미래를 사유하였다. 이런 기억과 망각의 딜레마를 통해 분단의 분신 '빨갱이' 담론을 사회적 담론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박완서가 기억의 증언을 어떻게 사회적 담론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분단의 증언

박완서의 소설은 사적 경험의 차원에서 분단의 증언이 된다. 사적 경험

10) 박성은은 박완서의 1970-80년대 소설이 분단서사에 대한 저항서사라고 보았다. 박성은, 「박완서 소설 속 '망령들'을 통해 본 분단서사의 틈과 균열」, 『용봉인문논총』 53,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95-120쪽.

11) 한모니카,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412쪽.

은 또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으로 나누어진다. 자전적 경험을 소설화한 계보는 『나무』(1970)를 시작으로 『부처님 근처』(1974), 『목마른 계절』(1972~1977), 『엄마의 말뚝』 시리즈(1982-198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로 이어진다. 1970년대 허구적 구성에서 1980년대 사실과 허구의 혼합 구성, 그리고 1990년대 “기억의 파편들을 잃지도 보태지도 말고 고스란히 주워모아”¹²⁾ 기억에만 의지해서 쓴 자전적 소설을 통해 사실의 재현으로 나아갔다. 이 반복적 글쓰기의 과정을 자서전 쓰기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억의 회상’으로 보기도 하지만¹³⁾ 박완서의 기억은 ‘회상’될 수 없다.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은 ‘회상’으로 과거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완서의 전쟁 기억은 신체에 각인된 기억이다. 마모되거나 뒤섞여있어서 의식적으로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 재구성해야 하는 기억이 아니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작은 계기만으로도 불쑥 찾아와 신체를 지배하는 기억이다.¹⁴⁾ 하나의 기억이 이렇게 변주되어 구성되었던 이유는 ‘반공주의’라는 사회적 억압에 의해 ‘적’으로 분류된 모든 행위와 연관이 있으며, 그 기억은 망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¹⁵⁾ 즉, 반복적 글쓰기를 통해 기억을 모아 완전하게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을 파편으로 쪼개서 흩어놓았다가 그 조각들을 자기 자리에 위치매김한 것이다. 그렇기 때

12) 박완서, 위의 글, 173쪽.

13) 이평전은 박완서의 자전적 글쓰기가 ‘회상’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회상의 방식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를 의식하기 위한 것이 된다. 박완서의 기억이 자서전 쓰기의 전략에 따라 ‘회상’된다는 해석은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877쪽(869-895).

14)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73-83쪽.

15)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실을 밝힐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논의는 강진호와 조미숙의 논문을 참조할 것.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313-337쪽;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223-257쪽.

문에 박완서의 기억은 증언이 된다.

다른 한 편, 박완서는 자신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낸 타인들의 기억도 증언했다. 이것들은 크고 작은 과편으로 거의 모든 작품에 스며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작품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 『겨울 나들이』(1975), 『돌아온 땅』(1977),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 『빨갱이 바이러스』(2009) 들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타인들의 기억도 '나'의 서사로 감정이입을 하거나,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박완서는 성인으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다. 그들은 전후 세대와 달리 자료를 수집하고 시대를 추정하고 전쟁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당대를 살아내면서 전쟁의 상처가 은폐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당대를 함께 살아낸 사람들만의 '공동의 기억'이 있다. 주변에서 '국민'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보고 동조했고, 그럼에도 예상치 않은 곳에서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상처를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공동의 경험'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박완서가 소설에 기입한 그들의 기억은 연대기 기술자가 모아서 기술한 과편들의 증언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소설들 중에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기술한 소설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돌아온 땅』, 『빨갱이 바이러스』일 것이다. 이 단편들은 말하지 말아야 할 '빨갱이' 담론을 담고 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월북자가 있는 가족이 겪는 고통의 서사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돌아온 땅』은 1970년대 연좌제가 실정법이었을 때, 국가의 감시와 처벌의 강도가 높았던 그 시절 월북자가족의 고통이 직접적으로 서사화되었다. 그 고통은 시간이 흐른 2000년대에도 치유되지 않고 『빨갱이 바이러스』로 다시 소환되었는데, 수복지구의 고유한 역사와 고통이 더해져서 문제는 더 확장되었다. 전쟁부터 2000년대까지 60여 년의 시간을 두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분단의 고통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

소설은 ‘침묵’을 ‘직조(weaving)’¹⁶⁾하고 있는 구성물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장치를 독자 앞에 던져놓았다.

3. ‘마당’의 딜레마

『빨갱이 바이러스』는 분단의 역사, 분단의 시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정면에 배치해 놓았다. 바로 수복지구 양양이다. 양양은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에 놓인 지역으로 ‘수복지구(收復地區)’로 명명되어 별도로 관리되었던 곳이다.¹⁷⁾ 수복지구의 주민은 북에서는 ‘인민’이었고, 미군정에서는 ‘주민’, 남에 귀속되어서는 ‘국민’이 되었다. 양양의 원주민¹⁸⁾은 전쟁 중에 UN군의 점령과 후퇴, 재탈환에 따라 부역자 색출과 학살을 잇따라 경험했다.¹⁹⁾ 1951년 6월 이후에는 미군정 아래 국적불명

16) 박완서의 소설은 짧은 단편일지라도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서사들이 모여 하나의 상을 이루는데 그 또한 하나의 구분선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박완서에게 전쟁과 분단은 언제나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소설에 과거와 당대가 나란히 위치한다. 이와 같은 소설 구성방식을 필자는 박완서식 ‘직조(weaving)’라고 생각한다.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여 직물을 만들어내듯이, 전쟁과 여성, 전쟁과 가부장, 전쟁과 증산층, 분단과 근대화 등으로 소설을 직조하는 박완서의 탁월한 서술방식은 어느 한 부류의 문학으로 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7) 수복지구는 경기도 2개군, 강원도 7개군에 걸쳐있다. 전선의 이동에 따라 9개 군이 점령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선이 고착화되었던 1951년 여름에 대부분 UN군 관할로 편입되었다. 양양은 전쟁 전에는 38선 이북의 땅이었으며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UN군이 한달 반 가량 점령했다가 후퇴했고, 1951년 6월 재탈환하였다. 이후 미군정(1951.6~1954.4)과 국군에 의한 군정(1954.5~1954.11.)을 거쳐 남쪽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18) 휴전 이전에 수복지구에서 미군정이 실시된 곳은 양양이 유일하다. 김귀옥은 구술 조사를 통해 양양이 다른 수복지구와 달리 전쟁 중에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사회』 46, 비판사회학회, 2000, 30~53쪽.

19) 속초 부월리에서는 1950년 국군이 후퇴하던 중 인민군을 가장하여 민간인을 모은 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9년 AP통신사의 한국전쟁 양민학살 고발로 알

의 불안정한 위치의 '주민'이 되었다. 미군정은 주민들에게 색출작업과 구호행정을 병행하면서 무엇보다도 “과거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성지역(敵城地域) 주민들을 재교육 및 재진향시켜 생활양식을 바꾸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²⁰⁾ 1954년 11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도민증을 발급하면서 ‘원주민’을 별도로 구분했다. ‘대한민국 강원도민’으로 인정된 동시에 ‘수복지구 원주민’으로 분류·관리되었던 것이다. 수복지구도 별도로 관리·통제되어 주민들이 수복지구 내를 여행하는 데도 증명서가 필요했고, 이곳을 드나드는 타지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했다.²¹⁾ 대한민국 정부는 수복지구의 원주민을 바로 국민으로 등록하지 않고 감시하고 배제하는 차별정책을 1960년까지 이어갔다.²²⁾

수복지구 원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은 ‘붉은 학정 아래서 착취’를 당했다는 연민도 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 모두는 부역자이며 간첩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간첩신고를 일상화하도록 계몽하는 한편으로 감시와 통제는 타지역에 비해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²³⁾ 이처럼 부역자,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이 되기 위해 이승만정권을 적극 지지했고, 간첩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공의 투사가 되어갔다. 이런 억압을 견디지 못한 원주민은 고향을 등지고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침묵으로 시대를 살아냈다.

박완서는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작중 화자인 ‘나’의 마을이 “정체모를

려졌다. 김귀옥, 위의 글, 44쪽.

20) 김귀옥, 위의 글, 45-47쪽.

21) 한모니까, 앞의 책, 414-415쪽.

22)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수복지구는 1950년대 선거와 지방자치체에서 제외되었다. 196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복지구 주민들이 차별이라고 불만을 초하고 자치참여권 부여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었으나 지방선거는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 한모니까, 앞의 책, 418-423쪽.

23) 한모니까, 앞의 책, 408-412쪽.

떠돌이들 차지가 되었다”며 “사실은 그래 싸다”고 냉소했다.

인민군에 나갔거나 혹은 그쪽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력 때문에 집을 먹고 제집 제 땅빼기보다는 체제를 택해 이복에 남은 식구나 친척이 없는 집이 없었다. 그런 식구들이 우리 삼촌처럼 야밤을 틈타 다녀가는 건 남한 당국에선 간첩으로 간주돼 반드시 신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도무지 간첩질을 할 것 같지 않은 자식이나 동기간이나 돈이나 식량 등 물질을 요구하는 걸 거절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분명히 아무 눈에도 안 띄게 감쪽같이 다녀갔건만 다음날 경찰에 잡혀가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오는 일도 심심찮게 생겼다. 너무 얻어맞아서 병신이 되고 만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일러바쳤을까 서로 의심하고 넘겨짚어 다투기도 하면서 마을의 인심은 점차 예전 같지 않아졌다.²⁴⁾ (밑줄은 필자가 강조)

인용문에 제시된 대로 수복지구의 특성상 원주민들은 다수가 월북자가 족에 해당한다. 전쟁 중에 사회주의를 택한 자진 월북, 의용군 차출로 인한 월북, 납북 등에 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월북이었다. 살던 곳에 그대로 남는 경우였고 전쟁을 지나면서 터득한 생존의 방편이었는데, 남의 입장에서서는 ‘월북한 빨갱이’가 되었던 것이다.²⁵⁾ 이 지역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북에 있는 가족이 밤을 틈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당시의 허술한 휴전선을 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다녀간 다음이었다. 북에서 누군가 왔다 간 것이 알려지면 직계 가족은 물론 친지와 이웃들에

24) 박완서, 위의 글, 332-333쪽.

25) 월북에는 층위가 있다. 사회주의를 좇은 자진 월북, 전쟁 중 의용군 차출에 의한 ‘반강제적’인 월북,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강제로 연행해 간 납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자진 월북은 남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형태의 월북으로 연좌제가 미치는 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남아있는 가족들은 국가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았다.

제도 연대 책임을 묻는 처벌의 방식은 원주민들로 하여금 간첩 신고를 생활화하도록 강제했다. 마을 공동체 의식은 깨졌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자발적 검열이 내면화되었다.

박완서는 이 부분에서 '원주민'과 '국민'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했다. 원주민의 삶의 방식은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주민이 수복지구라는 장벽을 뚫고 국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족규범과 공동체규범을 버려야 했다. 그것의 극단적인 방법은 '근친살해'였다.

내가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달밤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하고 엄마와 삼촌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 실은 다투고 있는 건 삼촌과 아버지고 엄마는 두 사람 주위에서 고사 지널 때처럼 두 손을 짹짹 비비며 제발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다가 돌변해서 죽어버려, 저런 동기간은 없는 게 나야, 차라리 죽어버려, 내가 아는 엄마는 그런 모진 저주의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중략) 거구인 아버지의 힘찬 뿌리침에 엄마가 땅으로 나자 빠진 것과 삼이 삼촌의 어깨를 후려친 것은 거의 동시였다. 그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삼켰다. 그러나 삼촌의 몸이 사선으로 번갯불 같은 균열을 일으키며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걸 여실히 본 것처럼 느꼈다.²⁶⁾ (밑줄은 필자가 강조)

아버지가 삼촌을 죽였다. 아니 죽인 것 같다. 열 살이었던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았기에 삼촌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밤새 아버지가 마당을 파는 삽질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 그 이후로 삼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촌의 실재적 죽음이 아니라 '삼촌 삶의 삭제'이다. 삼촌은 남한에 있는 가족에서 분리되고 삭제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

26) 박완서, 위의 글, 330-331쪽.

과 마찬가지로다. 정황으로 보아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공모하여 삼촌의 사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월북자가족의 상당수가 월북자의 사망신고를 내고 호적에서 삭제했다.²⁷⁾

이와 같은 사실은 2000년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1, 2차 이산가족 상봉은 남과 북에서 각각 100명씩 신청을 받았는데 북쪽 신청자들은 모두 월북자였다. 남쪽에서 북쪽 신청자의 가족을 찾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조성미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월북자가족은 부모 형제들과 의논하여 사망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산가족 상봉자 중 한 명이었던 최명연(가명)은 동생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법원에 호적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최명연은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월북한 동생의 존재를 숨겨왔었다. 조성미의 면접대상자 15명 중 11명의 가족이 월북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월북자가족들은 월북자의 존재를 호적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살았다는 기억마저 망각했다.²⁸⁾²⁹⁾ 그리고 이들은 ‘이산가족’으로 호명되지 않는다.³⁰⁾

이처럼 월북자를 호적에서 삭제하고 존재를 지운 행위가 이 소설에서 ‘근친살해’라는 극적인 장면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

27) 전후 행정 혼란기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사망확인서를 대신한 사망신고가 다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중 호적과 누락된 호적을 일제히 정리하는 호적정정 기간을 마련하였는데 그때 월북자의 다수가 사망신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조성미, 『월북자가족의 생활경험과 월북의 의미체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29)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한 경위가 드러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전쟁 중에 아버지가 행불(행방불명)되었는데, 가족들은 월북인지 남북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병사(病死)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쓰여 있다. 어머니는 2000년 2차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명단이 발표된 뒤 돋보기안경을 쓰고 북측 상봉 신청자 명단을 훑어보았다. 찾는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끝내 어머니는 말을 모두 삼켰다고 쓰고 있다. 조은, 『침묵으로 지은 집』, 문학동네, 2003, 100-126쪽.

30)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56-60쪽.

가 마당을 파고 묻은 것은 삼촌의 시체가 아니라 삼촌의 존재와 기억이다. 가족이었던 삼촌을 가족과 분리함으로써 연좌제의 울가미를 벗어나고자 했다. 국가규범과 가족규범의 충돌에서 분단은 국가규범을 절대 우위에 놓았다. 분단을 지렛대 삼아 만들어진 국민국가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비국민'을 내부의 외부에 두고 배제와 차별로 국민통합의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복지구의 원주민은 가족의 일부를 사망시켰다. 현실에서 일어난 진짜 살해가 아니었지만 죄의식을 동반한 '의사(疑似)살해'였던 것이다.

소설의 작중 화자인 '나'는 경치를 그린 그림을 본 후 그림과 같은 현실의 경치 앞에 서면 "현실이 가짜고 그림이 진짜인 것 같은 착란"을 일으키곤 한다. 그것은 "그날 밤 내 마음에 인화된 산이 진짜고, 여기 올 때마다 대하는 현실의 산이 가짜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가짜다. 그림에도 그것은 엄연한 진짜 '살해 현장'이었고, 그 현장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동이 되도록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혼동은 분단이 강제해온 망각에 대한 저항이다. 은폐했으나 은폐한 기억이 남아 인식의 체계를 흔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사실이라고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기억하게 된다. 삼촌의 삶은 복에서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가족의 옆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일 땅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실은 내가 더 무서워하는 건 삼촌이 그날 살해되지 않고 북쪽 어딘가에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중략) 남편은 나에게 그런 삼촌이 있는 것도 몰랐다. 나는 그 살해 현장을 단지 목격만 한 게 아니라 공범자였던 것이다. 나의 시골집 마당은 아직도 흙바닥이지만 양회바닥처럼 단단하다. 내 친구의 어머니 시신까지 허룻밤 사이에 동해바다로 토해낸 폭우도 우리 마당의 견고함을 범하진 못했다. 나의 입과 우리 마당은 동일하다. 둘 다 폭력을 삼켰다. 폭력을 삼킨 몸은 목석같이 단단한 것 같지만 자주 아프다.³¹⁾
(밑줄은 필자가 강조)

집과 함께 마당을 상속받은 ‘나’는 마당이 파헤쳐지는 것이 두려워 ‘남편’이 별장을 짓겠다는 것을 말렸다. 마당에서 삼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두렵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도 두렵다. 삼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가족에 의한 ‘근친살해’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동족상잔 위에 세운 국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앞선 세대가 내면화된 공포로 잘라버리고 묻어버린 가족규범을 확인하는 것이다. 삼촌의 시체가 없다면 북에 살아 있다는 것인데 그의 존재를 말살해버린 죄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의 존재를 되살린다면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빨갱이’라는 낙인도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과 혼동을 덮고 있는 마당은, 그래서 ‘나’에게 과거이면서 미래이고 현재다. 공적 기억에 기입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와 묻혀버린 기억을 품고 있는 마당은, 기억이 은폐된 것을 알고 있는 ‘나’에게 고통의 근원이며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기체인 것이다.

그들은 마당에 기억과 망각을 함께 묻었고, 침묵으로 덮었다. 삼촌의 삶에 대한 기억, 삼촌의 존재를 기억에서 말살한 망각에 대한 기억, 삼촌을 망각하고자 공조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망각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과 망각 위에 덮어놓은 것은 시간이 흘러도 “마모도 소멸도 안 되는” 철통같은 침묵이다. 또 침묵의 흡은 양희바다보다 더 단단해서 어떤 자연재해로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구조로 은폐된 기억과 망각을 덮고 있는 것이 ‘흙’이라니, 모순적이지 않은가? 흡은 서로 엉켜 단단할 수도 있지만 틈도 있고 유동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흡은 침묵과 등치된다. 침묵은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말하고 싶은 욕망이 충돌하는 이중성을 포괄하고 있다. 마당을 덮고 있는 것이 흙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쉽게 파헤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다. 그런데 말할 수 없도록 만

31) 박완서, 위의 글, 335쪽.

드는 보이지 않는 억압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 그 침묵의 단단함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소설에서 마당은 파헤쳐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 '나'의 부모가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가기 전에 마당을 팔 기회도 있었고, '나'도 남편의 뜻에 따라 마당을 파헤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당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두려운 '나'와 부모는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나'도 알고 있다. 마당이 파헤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당은 파헤쳐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마당을 대하는 '나'는 파헤쳐졌으면 하는 마음과 파헤쳐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의 갈등에 빠진다. 파헤쳐지면 '나'와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 삼촌을 죽인 죄가 드러나는 한편, 그들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든 폭력의 실체도 밝혀질 기회가 될 것이다. 파헤쳐지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과 죄의식은 물론이고 폭력의 실체도 영영 망각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곧 마당이 품고 있는 딜레마이며, 이 마당의 딜레마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빨갱이' 낙인이다.

4. '빨갱이 바이러스'의 정치적 함의

빨갱이는 분단체제 하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단어다. 사회변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길목에서 빨갱이는 그 어떤 사회적 담론보다 위력적이다. 그래서 분단의 수혜자들에게 빨갱이 담론은 폐기할 수 없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왔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사용했던 '빨강(赤)이라는 단어 '아카(アカ)'에서 유래했다. 이 색깔은 '주의자(主義者)' 즉 '사상'을 의미했고, 더 좁게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지칭하는 낙인으로 사용되었다.³²⁾ 해방 직후에도 간혹 쓰이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이였다.³³⁾ 1948년은 제주도 진압³⁴⁾을 명령받은 14연대가 동포의 학살을 반대하며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해이다.

김득중에 따르면 현재적 의미의 빨갱이는 이 여순사건에서 ‘탄생’했다. 이승만 정권은 14연대 반란을 진압하면서 빨갱이 담론을 생성했다. 먼저 반란군과 동조한 민간인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공산주의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죽음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이다.³⁵⁾ 또한 공산주의자는 ‘내 민족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이자 ‘적’이기 때문에³⁶⁾, ‘국민’은 빨갱이를 박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박멸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회적 정당성이 주어졌다.³⁷⁾ 이 사건으로 군인들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는데³⁸⁾, 이들은 빨갱이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언론과 문인들이 만들어낸 빨갱이 담론에 의거해, ‘죽어서’ 빨갱이가 되었다. 새로운 ‘반공 민족의 탄생’이었다.³⁹⁾ 이렇게 탄생한 빨갱이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단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무한히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포함될 수 있는 이름이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낙인 그

32) 강성현,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 -적(赤-敵)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100, 한국사회사학회, 2013, 237쪽.

33) 주창윤, 『해방공간, 유행어로 표출된 정서의 담론』, 『한국언론학보』 53(5), 한국언론학회, 2009, 370쪽.

34)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난 제주도는 군과 경찰, 청년단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실시되었다.

35)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560쪽.

36) 김득중, 앞의 책, 413쪽.

37) 김득중, 앞의 책, 561쪽.

38)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여수 지역과 순천군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수를 조사했다. 총 10,000여 명의 피해자 중 9,500여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한 학살이었고, 약 500여 명이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한 학살이었다. 피해자의 95%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김득중, 앞의 책, 353쪽.

39) 김득중, 앞의 책, 412-416쪽.

자체이다.”⁴⁰⁾

여순사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열려 있는’ 빨갱이 개념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등록되었다. 그 중에 전후 수복지구 원주민은 대량으로 유입된 ‘태생적 빨갱이’다. 여순사건은 빨갱이의 탄생 뿐 아니라 한반도의 ‘이념 지도’⁴¹⁾ 생성에도 한 몫을 해냈다. 이승만정권은 반란군이 활동했던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주민 모두를 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여수, 순천지역은 붉은 땅이 되었고, 전쟁을 지나며 붉은 땅은 점점 넓어졌다. 수복지구는 그 특성상 이념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 어느 곳보다 더 붉은색일 수밖에 없었다.

박완서는 이 소설에서 제목에만 빨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뿐 소설 속에는 쓰지 않았다. ‘빨갱이 바이러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빨갱이는 누구인지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제목은 작중 화자인 ‘나’의 의식과 행위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 ‘태생적 빨갱이’인 ‘나’에게 빨갱이라는 단어는 공포의 대상이며 발화할 수 없는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 그들은 그런 망측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과장까지 해가며 털어놓았다. 필시 소문날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주소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소문을 내겠는가. 그들의 보안은 이렇듯 완벽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천년 묵은 고목처럼 한자리에 뿌리박고 누대를 살아온 이 고가의 주인이다. 상속녀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증명은 충분할 것이다.⁴²⁾ (밑줄은 필

40) 강성현, 위의 글, 237쪽.

41)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36, 한국정치학회, 2002, 76쪽. “4·3사건 이전의 제주도(ideological mapping)에 대한 오해가 클수록 피해가 막대해진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념적 오인(misconception)은 최초 행동의 동기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국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체계와 다르다는 이러한 오해는, 그들이 실제로 그러했건 또는 권력집행자들의 상상 속에서 그러하였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염적 요소로 받아들여지며 대량학살로 이어진다.”

자가 강조)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된 세 여자, ‘소아마비’, ‘땀’, ‘보살님’은 익명의 힘을 빌어 ‘망측한 스캔들’을 거리낌 없이 고백했다. 그들이 ‘나’에게도 고백할 것을 중용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태생적 빨갱이로 등록된 수복지구 원주민에게 익명은 없다. 익명의 꼬리에 달리붙은 붉은 먼지만으로도 분단체제는 빨갱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여도 돼’는 ‘빨갱이 바이러스’ 보균자이며, 수복지구 원주민과 월북자가족도 모두 이 바이러스의 보균자다. 직장과 거주지, 일상의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들, ‘나’의 정체가 알려지면 ‘더럽고 무서운 병균’을 대하듯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⁴²⁾ ‘나’도 “인간이기에 인간이 아니었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 안의 상처가 남의 상처와 만나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분단구조 아래서 빨갱이 바이러스의 보균자로서 신체화된 내적 검열은 엄격하게 작동하며, 익명의 고백조차 거부하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침잠하게 되는 것이다. 비단 이것은 ‘나’의 개인적 성향이 아니다. 수복지구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경험이며 집단의식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개별자이자 수복지구 원주민이라는 집단의 ‘공동 기억’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의 침묵은 마당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그러나 마당을 지키는 또 하나의 침묵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고백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42) 박완서, 위의 글, 325쪽.

43)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소설에 없다. 세 여자가 그 집에서 자고 일어나 집터가 좋은가보다고 덕담을 하는 데, 그 바로 앞에 ‘폭력을 삼킨 마당’에 대한 독백이 배치되었다. ‘당신들이 마당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할까?’라는 박완서식 냉소와 비틀기가 문자화하지 않은 채 행간에 숨어있다고 보인다. 이렇듯 빨갱이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냉대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빨갱이’ 가족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행위는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허락하지 않고 고통의 연대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침묵이다. 세 여자가 “망측하고 지저분한 비밀”을 털어놓고 난 후에 훨씬 맑고 개운해 보이는 모습에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나고 씹”도 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진 비밀은 망측하고 지저분한 것과는 결이 다른, 그저 분단시대에 양양이라는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데서 오는 불합리함이다. 결국 마당을 덮고 있는 침묵은 “온 세상의 침묵이 다 모여서 짜고 짠 것 같은 견고한 침묵”이다. 이 철통같은 침묵의 벽 앞에서 “어떤 상처하고 만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내 몸이 나는 대책없이 불쌍”해진다.

분단체제를 떠받치는 분단폭력의 피해자들은 빨갱이 담론의 정치적 위력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빨갱이 담론은 태생에서부터 잠재적 빨갱이, 곧 ‘빨갱이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었다. 빨갱이와 바이러스라는 절합 불가능한 단어가 만나 새로운 코드가 생성될 수 있었던 데는 ‘반공 민족’이라는 상상된 민족의 탄생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 역으로 ‘반공 민족’을 해체하면 빨갱이와 바이러스의 분절도 가능한 것인가? ‘탈빨갱이’는 사회적 담론이 될 수 있는가?

박완서는 이 소설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빨갱이 바이러스』에는 ‘나’의 서사 외에 세 여자-‘소아마비’, ‘땀’, ‘보살님’-의 비밀 고백 서사가 있다. ‘소아마비’는 의처증을 가진 남편의 감시를 괴로워하던 중 집으로 침입한 남자를 피해 3층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대가로 남편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행동의 자유도 얻어 때때로 외도를 즐긴다. ‘땀’은 중증 뇌성마비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의 내다버리라는 요구를 견디다 못해 아이를 버렸다. 그 후 건강한 아이들을 낳아 행복해졌지만 우울이 심해지자 버린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 봉사를 다녔다. 아내가 평온해진 것을 눈치챈 남편은 술만 마시면 “내 자식 어따 갖다버렸냐”며 아내의 살을 담뱃불로 지진다. 하지만 ‘땀’은 남편에게 아이가 있는 곳을 절대 말하지 않을 셈이다. ‘보살님’은 데리고 있던 손자의 과외선생과 신체적 접촉이 좋았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읍내에서 과외선

생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걱정돼서 나와봤던 손자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뒤였다. 손자가 죽은 후에도 과외선생을 내보내지 않았다가 그 선생이 금전을 요구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나서 그를 내보내고 손자의 명복을 빌고 있다.

세 여자의 비밀은 여성의 외도, 장애인가족의 고통, 노년 여성의 정욕과 물욕에 대한 것이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숨겨져 왔던 서사들이 근래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른 경우이기도 하다. 박완서는 이 일상의 담론 옆에 빨갱이 담론을 배치해 놓았다. 엄밀히 말해 옆이 아니라 그 아래 놓았다. 세 여자는 들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지만 ‘나’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으로만 ‘독백’을 했기 때문에 동등한 발화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발화의 방식은 왜 어떤 비밀은 고백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독백의 위치는 독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왜 빨갱이 담론은 일상의 담론과 나란히 하지 못하는가? 왜 망각된 기억은 말해질 수 없는가?

5. 나가며 - ‘탈빨갱이 담론’의 사회적 담론화 가능성

박완서는 『빨갱이 바이러스』에서 빨갱이 담론을 일상의 사회적 담론 옆에 놓으려고 시도했다. 박완서에게 전쟁과 분단은 일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몫이다. 분단의 수혜자들이 온갖 폭력을 동원하여 일상과 분단을 분리해 놓았지만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단은 일상과 분리될 수 없다. 다만 보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분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박완서는 분단을 다시 일상의 옆자리에 배치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크 랑시에르가 말한 문학의 정치에 해당한다. ‘문학의 정치’란 문학이 시간들과 공간들,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구획 안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⁴⁴⁾ 즉, 박완서는 분단이 갈라낸 시간들과 공간들, 역사에 기입된 것들과 망각된

과편들, 말해진 것들과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의 구분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단이 정해놓은 위치를 거부하고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는 소설 속 여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이다. '내'가 독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마당'과 '빨갱이 바이러스'의 상속자로 독자를 지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체험세대와 전후세대는 이제 더 이상 전쟁과 분단문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다.⁴⁵⁾ 그들은 실패했고 분단의 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다. '마당'의 비밀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억압하고 망각하기에 급급해 억압과 망각의 순환 구조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마저 침묵으로 봉쇄해버렸다.

그 탈출구는 바로 '마당'이다. 분단의 실체인 마당을 침묵으로 덮어두고 있는 한 분단을 극복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 또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를 봉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박완서는 마당을 덮고 있는 침묵의 실체를 '흙'으로 상징했다. 실상 이 흙은 상상된 허구 '반공 민족'이며, 실체가 없는 환상 속 괴물 '빨갱이 바이러스'이다. 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파헤칠 수 있는 물질이다. 환상체계도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비가시적이 된 시간들과 공간들, 듣지 말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배제된 것들 위에 세워진 환상체계를 전복하는 상상 이 곧 흙을 파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박완서는 마당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으로 빨갱이 담론을 일상의 담론 옆에 배치하여 사회 안에서 회자될

44)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11쪽.

45) 『빨갱이 바이러스』 속 '나'는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등장하는 '나'와 다른 세대이다.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과 분단을 말하는 화자는 대체로 작가 자신인 전쟁체험세대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는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전후세대'라 불리는 세대에 속한다. 전쟁체험세대와 다른 기억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체험세대의 억압 아래 분단을 상속받아 그들과 마찬가지로 망각의 구조를 침묵한 세대이다. 박완서가 의식적으로 전후세대를 '나'로 앞세운 데는 '나' 또한 상속자로 해결하지 못한 분단문제를 후속세대에게 상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빨갱이 담론의 사회적 담론화인데, 말할 수 없음을 말해질 수 있음으로 바꾸는 것, 금기어들을 침묵의 자루에서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수복지구, 빨갱이, 월북자, 공산주의, 공산주의자와 같은 금기어들이 회자되고, 그렇게 지칭된 사람들의 삶이 우리 옆에 놓이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박완서는 독자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로, ‘나’의 마당을 파헤쳐 줄 상속자로 지명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빨갱이는 과연 무엇이었나’를 사유하는 ‘탈빨갱이’ 담론의 시작점이 된다.

2018년은 남과 북의 관계에 변화의 징후가 포착된 해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분단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빨갱이 담론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남에서 ‘태생적 빨갱이’, ‘뺏속까지 빨갱이’인 북의 주민들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물어 놓은 분단의 마당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남북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어려울 것이다. 분단의 마당을 파헤치는 것은 고통과 슬픔, 책임과 성찰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현재를 건디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탈빨갱이’ 담론의 사회적 담론화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옆에 나란히 놓고 사유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박완서, 『빨갱이 바이러스』,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3, 297-336쪽.

2. 단행본

권명아,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 시대의 미래』,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박완서 외, 웅진닷컴, 2002, 199-217쪽.

-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56-60쪽.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1-670쪽.
-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문학비평』, 김승환·신승범 엮음, 청하, 1987, 17-54쪽.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08, 329-350쪽.
- 유임하, 『기억의 심연』, 이회문화사, 2002, 209-213쪽.
-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221-223쪽.
- 임현영, 『우리시대의 소설 읽기』, 도서출판 글, 1992, 318-328쪽.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9-50쪽.
-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박완서論』, 권영민 외, 삼인행, 1991, 85-98쪽.
- 조은, 『침묵으로 지은 집』, 문학동네, 2003, 100-126쪽.
-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이란 무엇인가』, 『박완서論』, 권영민 외, 삼인행, 1991, 127-178쪽.
-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73-83쪽.
-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408-412쪽.

3. 논문

- 강성현,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 -‘적(赤-敵)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100, 한국사회사학회, 2013, 235-277쪽.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313-337쪽.
-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사회』 46, 비판사회학회, 2000, 30-53쪽.
- 김향, 『분단의 기억, 기억의 정치』, 『인문논총』 73(2), 인문과학논총, 2016, 361-392쪽.

- 박명림,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36, 한국정치학회, 2002, 69-91쪽.
- 박성은, 『박완서 소설 속 ‘망령들’을 통해 본 분단서사의 틈과 균열』, 『용봉인문논총』 53,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95-120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 이평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869-895쪽.
-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4, 한국문예비평학회, 2007, 223-257쪽.
- 조성미, 『월북자가족의 생활경험과 월북의 의미체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조은, 『차가운 전쟁의 기억: ‘여성적’ 글쓰기와 역사의 침묵 읽기』,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3-21쪽.
- 주창윤, 『해방공간, 유행어로 표출된 정서의 담론』, 『한국언론학회』 53(5), 한국언론학회, 2009, 360-383쪽.

Abstract

The dilemma of 'the yard'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Ppalgaengi virus' in Park Wan-seo's 'Ppalgaengi virus'

Park, Sung-eun

Park Wan - seo is a writer who has left witness and testimony every time she passes the age of war and division. She also testified about the autobiographical experience as well as the common memory of those who survived the present day. This corresponds to the recording system of Walter Benjamin's history of collecting technician it said. Park Wan-seo did not testify about the division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and nation', but raised the problem of division through ordinary people's daily life. This method is a way of recording what Park Wansuh a way that does not remember the reason for the division and fragmentation.

The author, whose works have been weak Since the publication of an autobiographical novel in the 1990s , published the 'Ppalgaengi virus" in 2009. This novel explores the structure of division through the history of Yangyang restoration and Aboriginal life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overcoming division.

In this novel, Park stares at the most acute confrontation of our society, the 'ppalgaengi discourse'. This seems to be the willingness of 'post-ppalgaengi discourse' to overthrow the 'ppalgaengidi discourses' to be a social discourse. It will be possible to start a history of overcoming by clearing the history of the division and discussing socially without discouraging discourses on

the side of daily discourse.

Key words : ppalgaengi, post-ppalgaengi, ppalgaengi virus, system of the division,
dissolution of the division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
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